

투데이 칼럼

반도체 공급망 전쟁

중국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자체 공급망 확보를 선언한 미국, 중국, 한국을 대비한 대만의 해외 진출도 시작됐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일본과 유럽 등도 주목을 받고 있다.

명분상의 칩4 동맹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시대로 돌입한 것 같다. 이 가운데 한국과 삼성이 소외되는 분위기다. TSMC는 7만여 명의 직원과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사 임직원은 물론 언론, 국민, 정계의 아낌없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과 많이 다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도덕과 윤리, 환경을 밑바탕으로 잡고 있다. 미국 인텔의 파운드리 선전포고에 이어 일본 구마모토의 TSMC 신공장 착공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저지하기 위해 공급망 전쟁에 나섰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 속도를 늦추고, 미국의 삼성에 대한 지원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은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에 대한 조건으로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6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정복규 논설위원

미국 진출을 선언했고 삼성전자는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아울러 AI 산업 발전으로 기존 반도체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돼 미국이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나섰다. 더욱이 인텔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인텔 파운드리 다이렉트 커넥트 2024' 행사에서 TSMC를 협력자로 내세웠다.

삼성엔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TSMC에 이은 제2의 파운드리가 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일본도 반(反)삼성 기치를 들고 나왔다. 최근 문은 연구 마모토 공장은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삼고 있어 삼성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수조 원대 보조금을 받기로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등이 출자해 세운 라피더스도 훗카이도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예정

이다. 과거 삼성에 전자산업 맹주 자리를 내준 소니가 TSMC의 합작 파트너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JASM은 시장의 스페셜티 기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일본의 뛰어난 반도체 인재를 활용해 글로벌 반도체 에코시스템의 성장에 공헌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대만 TSMC의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1공장이 문을 열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TSMC 공장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TSMC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2공장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구마모토 1공장은 일본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TSMC가 2021년 10월 일본 진출 의사를 밝힌 후, 2022년 4월 착공해 지난해 12월에 완공했다. 불과 1년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세계·규제 면에서 유

례없는 혜택을 제공했다.

TSMC의 지원뿐만 아니라 일본 자체 기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의 신생 파운드리기업 라피더스가 캐나다 램리스 텐스트랜트로부터 2나노미터공정을 활용한 AI 칩 생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라피더스와 텐스트랜트는 AI용 반도체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2nm 이하 공정 프로젝트를 수주할 곳은 대만 TSMC, 삼성전자, 미국 인텔에 이어 라피더스가 네 번째다.

라피더스는 도요타, 키오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의 국산화를 위해 작년 11월에 설립한 회사다.

일본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면서 회사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라피더스는 유럽 최고 반도체 연구개발 기관인 벨기에 종합반도체연구소(MEC)와도 기술 협력을 맺기로 했다.

EU는 전체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3위 소비시장으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크다. 하지만 역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9%에 불과하다. 거액의 보조금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묶어두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사설

어느 학교 보조금 부당 수령

전북 도내 어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이 학교는 학업을 중단한 175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닌 것처럼 명단을 제출해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들의 근무 태만과 공사 계약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 학교는 분기별로 학생수와 출석 일수에 따라서 수업료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 결석으로 제척 처리되거나 자퇴한 학생까지 포함해서 수업료를 과다 청구했다.

지난 1년 동안 도중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 175명이 학교를 더 다닌 것처럼 명단을 제출해 900만 원의 수업료를 도교육청에 청구해 받아 간 것이다. 입학 당시부터 서류상으론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학생'을 만들어 출석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016년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학교 설립자가 교

장실에 상주하며 학사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도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장이 설립자의 지시에 따라 교실 바닥 교체 등 6건의 시설 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맡겼다고 판단했다.

교직원들의 근무 태만도 지적됐다. 행정실장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50차례나 무단결근과 조퇴를 하면서 급여는 모두 챙겨갔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 재단 측에 행정실장을 해임 처분토록 하고, 이사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설립자가 학교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부당 청구된 보조금은 회수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유령 학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문제점을 확실하게 분석해서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찾기 바란다.

현대인의 건강 질환

현대인들의 질환은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에는 원인모를 위, 식도, 대장, 간 질환이 늘고 있다. 특히 소화기 이상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종합검사를 받아도 식도염이나 위염 초기 정도로 진단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되면 주위에서는 피병환자 취급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중증 위장병, 역류성 식도염, 대장질환 등으로 고생을 한다.

단순 식도염, 즉 위염이 아닌 '담적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았다면 담적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담적병의 '담'은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생긴 부패한 독소 물질이다. 여객이 굳으면 '담(痰)'에 걸렸다고 말할 때의 담과 동일 용어다. 폭식, 급식, 인스턴트식, 폭음 등 안 좋은 식습관을 반복하

면 위와 장에서 담 노폐물이 생성되고 쌓이게 되면서 담적병이 발생한다.

이때 위장이 담을 말끔하게 분해시키지 못하면, 누적된 담은 위와 장의 면역세포를 파괴한다. 심해지면, 담 독소는 염증으로 악화된 환경, 림프의 구멍을 타고 온 몸으로 퍼진다.

위, 장뿐만 아니라 간, 폐, 기관지, 심장, 혈관, 생식기, 뇌, 방광, 신장 등에서 각종 질환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담적병은 특히 속이 항상 안 좋다고 느끼는 환자들 중에서 가슴이나 복부의 이상 증상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 뒷목 어깨통, 진신피로 등 여러 증상을 동반할 때가 많다.

실제로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 소화질환과 오랜 동반 증상들에 시달려온 사람들이다. 이런 환자들이 담적병 치료를 받으면 여러 증상들이 한꺼번에 호전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공동 기자회견하는 우크라이나-리투아니아-폴란드 정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부터) 우크라이나 대통령,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3해(海)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중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3해 이니셔티브'는 2016년 8월 폴란드·크로아티아·리투아니아 등 유럽 3개 바다(발트해·흑해·아드리아해) 인근 12개국이 힘을 모아 경제성장을 이루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결성했다.

구호 외치며 행진하는 칠레 시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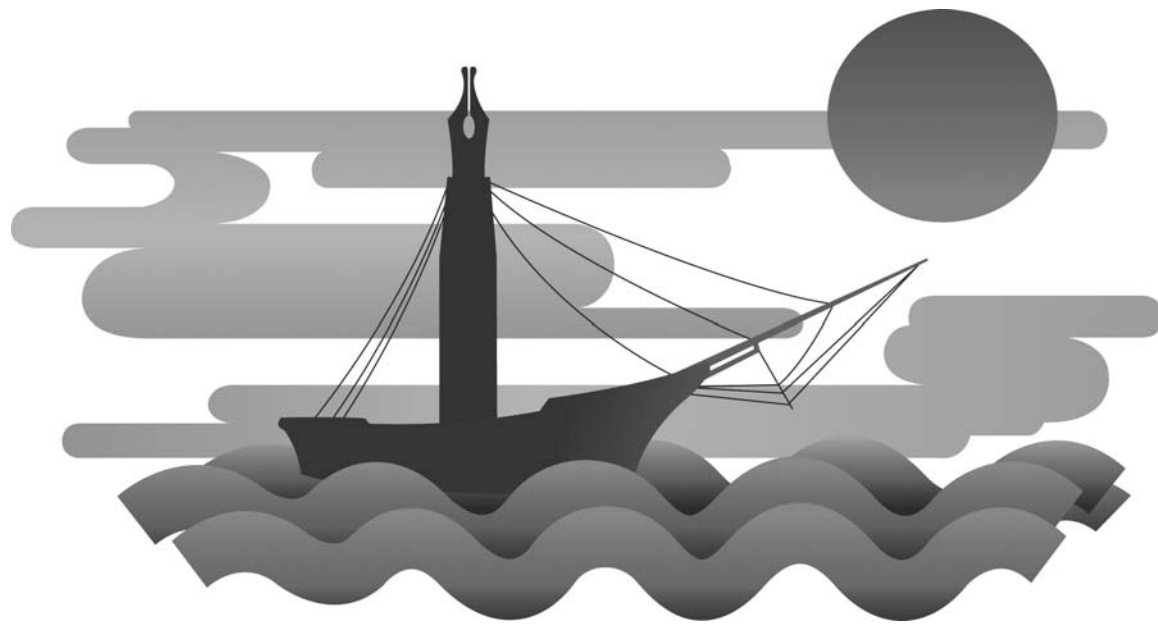
지난 11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칠레노동자중앙노동조합(CUT)가 주도한 파업에 참여한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정부와 보수 정당에 합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